잡동사니 헤집고 하나님 찾기

(골3:1~4)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잡동사니 헤집고 하나님 찾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이 잡동사니들 틈에서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잡동사니를 헤집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요즘은 샤워가 일상적인 삶이 돼버렸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목욕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심한 경우는 명절 때 한 번씩 목욕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참 굉장했지요, 귀지 같은 것도 밖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요즘은 샤워를 자주 하니까 목욕탕마다 면봉이 있어서 면봉으로 귓속을 싹싹 닦고 그러니까 다들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좀 이상해요, 지금도 눈이 조금 가려운데, 귀가 그렇게 자주 가렵습니다.
등허리가 가려울 때는 긁는 효자손이 있잖아요?
제가 독일 갈 때 산 거니까 90년도에 세트로 된 코스메틱 도구, 집게라든지 손톱깎이, 작은 가위, 그 속에 포함돼있던 귀 후비개를 24년 동안 쓰던 게 있는데, 금색으로 도금을 했는데 그게 하얘졌어요.
그걸로 효자손처럼 귀를 긁지 않으면 가려워서 못 견디겠어요.
제가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귀가 가려울 때는 그거 말고는 내 귀에 맞는 것이 없어서 한 곳에 놔두는데, 문제는 집사람과 제 아이가 귀 후비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불이 들

어오는 귀 후비개도 있고 하니까 내 거는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한 곳에 놔둔 걸 자기들이 쓰고는 아무데나 놔둬버립니다.
근데 귀가 가려우면 그냥 딱 답답해서 죽겠어요, 그래서 찾는데 없어요,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찾는 거예요.
찾는데 그야말로 서랍 같은 데를 열어보면 잡동사니가 있잖아요.
귀 후비개라는 게 얇고 작으니까 눈에 잘 띠지를 않으니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은 '잡동사니 헤집고 하나님 찾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잡동사니와 얽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제 머릿속에 일단 그 귀 후비개의 모양이 입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모양이 입력이 되고 내 온 관심이 귀 후비개를 향하고 있을 때,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게 다 잡동사니가 됩니다.
추리를 해보자면 분명히 집사람의 책상 위 어딘가에 있을 텐데, 집사람의 책상 위에는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있고 아이 책상 위에는 책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보는 수학책 영어책 귀중한 것이고 집사람의 지갑이라든지 물건들이 다 귀중한 것들이지만, 일단 제 머릿속에 귀 후비개가 입력이 되고 나면 그 귀중한 것들이 다 잡동사니가 돼버립니다.
다 잡동사니가 돼가지고 헤집어요, 헤집는다는 것은 걸리적거리는 것을 다 물리친다는 얘기에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지금 중요한 게 없어요.
귀가 가려워 죽겠는데 지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이의 국어책과 영어책과 수학책 따위가 무슨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필통 같은 것도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귀 후비개를 찾아들어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한 다음에 그 위에는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우편에 계신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야 될 위의 것, 그 대상입니다.
근데 '것'이라고 하니까 좀 거슬리잖아요? 여기서 '것'은 대상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대상, 그 대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하늘에 있으니까 위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찾는 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위에만 계십니까, 온 천지에 다 계시는데?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위에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만물에 다 손을 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분으로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찾는다는 얘긴가?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럴 때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그 다음 단계인 예수님의 승천하신 단계를 연합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단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써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묶여있는 상태로 사는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만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 죽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참 이게 어렵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을 바에는 그 부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부활한다는 의미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 대해 죽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참 부활의 의미가 있고 새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천국에 올라가면 새사람 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직 살고 있으니까 새사람이 의미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주님이 승천하신 단계에 연합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 이게 과제 아닙니까?
이렇게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살림하고, 이렇게 살면서 승천하는 단계에 연합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승천의 단계를 다 따라가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니까.
근데 그 승천의 단계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승천의 단계에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마음이 승천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느냐?
이게 바로 잡동사니 헤집고 하나님 찾기라는 거예요.
잡동사니라는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시면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자, 돈 문제가 덜컥 생겼어요, 그러면 돈 문제가 앞에 딱 섭니다, 그렇죠?
내 마음 앞에 서는 거예요.
내 마음 앞에 돈 문제가 설 때, 아니면 자식문제가 내 마음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은 자식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정면으로 마주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제일 급한 문제들, 이렇게 세상을 살다보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마음에 하나님을 입력하는 겁니다, 제가 귀 후비개를 입력하는 것처럼.
입력을 하고나서,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돈 문제 자식문제 건강문제 사업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잡동사니가 돼버립니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력하고 나면.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일단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입력되면 잡동사니가 돼버립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를 이제 뒤에서 할 거예요, 왜 그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얘기인지, 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잡동사니 취급을 해서 하나님을 찾아나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이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은 이 세상에 속하는 개념이지, 신령한 몸을 입고 살게 되는 천국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므로 우편이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이야기로 뭘 뜻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다.
그런데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도 승천하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얘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돈 문제 건강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세상 문제가 많아서 내 마음이 그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제의 답을 추구하고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들을 잡동사니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나머지는 잡동사니 취급을 해버리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업이 급박하고 심각해요, 그래도 일단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사업문제에 대해서 죽고 내 마음이 육체가 만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이제 내 마음속에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는 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딱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승천의 자리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꼭 망할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잡동사니입니다.

집사람의 지갑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잡동사니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집사람에게 중요한 건 제게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잡동사니 취급을 해버립니다, 귀후비개를 찾기 위해서.
귀 후비개가 사소한 것 같지요?
우리가 세상일이 바쁘다보면 하나님이 사소한 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 돈 문제가 중요하고 사업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을 잡동사니 취급하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는데,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생각한다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마음을 둔다는 얘기에요.

마음을 둔다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앞뒤 맥락을 잘 살려서 번역을 정확하게 하자면, '위의 것을 아쉬워하고 땅의 것을 아쉬워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위의 것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한다는 말 속에 이미 아쉬워한다는 말이 들어 있잖아요?
아쉬워한다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돈 문제가 생기면 제일 아쉬운 게 돈입니다, 돈은 땅에 있지요?
그걸 아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건강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아쉬워요? 건강이 아쉬워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도 계속 크고 작은 것들을 아쉬워하며 삽니다.

저는 바지를 사면 답답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바지를 사면 본래 그대로 입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바지를 밑단을 자르거나 줄이거나 난리를 한 번 피워야 내 바지가 돼요.
그럴 때마다, 뭐 누구는 뭐가 잘나서 다리를 길게 태어나게 하시고 난 뭘 못해서 다리가 이렇게 짧게 태어났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한 2센티만 길어도 좋겠어요, 2, 3센티 그 까짓것 별것 아니잖아요?
제가 어깨가 넓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넓은 어깨뼈를 자르면 좀 날씬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뼈를 다리에다 갖다 붙여주시지 왜 쓸데없이 어깨만 넓게 만드셔가지고, 그러니 짜리몽땅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옆은 넓은데 다리는 짧고, 아쉬워요.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돈이다 건강이다, 심각한 것까지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수능시험 봤어요, 3점만 더 맞았으면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이 3점이 아쉬워요.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쉬워한 그것들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쉬워하던 돈이 생겼잖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잠깐 속아서 기뻐하는 것뿐이지.
내 다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3센티 길어도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봅니다.
그렇지만 짜리몽땅해도 설교라도 잘하면, '어, 짜리몽땅해도 설교만 잘하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아쉬워할 것을 정확하게 아쉬워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정확하게 아쉬워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쉬워함이 야기될 때 계속 빠져 들어가서 그 돈을 아쉬워하고 그러지 말고, 건강이 좀 이상할 때 건강을 아쉬워하지 말고 돈 문제가 생기건 건강문제가 생기건 자식문제가 생기건 어떤 문제가 생기건 답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끝난다는 걸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사일 추진력입니다.
제가 머릿속에 귀 후비개를 입력하면 다른 건 다 잡동사니가 돼서 찾아들어가는 게 마치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 들어가는 것처럼, 아쉬워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게 돈 문제가 있더라도 아, 나는 지금 돈 때문에 불만족하고 불안한 게 아니다, 돈의 상태는 이대로 놔두더라도 내가 만약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도 불안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을 텐데, 내가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쉬워하는 것이 추진력이 돼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다 잡동사니 취급을 하고 헤집어놔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만나질 때까지, 마치 그리스도가 하늘에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아버지를 대면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미사일처럼 뚫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나와요, '너희가 죽었으니까, 세상에 대해 아쉬워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세상을 아쉬워함과 동시에 믿음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연기처럼.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죽음은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고, 그 죽음은 육체로 만나는 세상에 대해 죽는 거니까.
그러면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죠.
이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지, 내 죄 사함으로 끝나기 위해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과정을 승천의 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도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름의 완성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생명은 나를 살게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요, 활동을 한다는 게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생명인 거예요.
돈이 나로 하여금 사업한다는 활동을 해서 살아있게 하니까 그게 바로 내 생명인 겁니다.

그러나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벌렸어요, 자살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이미 죽은 상태에서 자살하는 겁니다, 죽은 상태에서 두 번째 죽는 거예요.
자식이 생명이다, 자식이 생명이라서 모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지려고.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의 3절에 나온 '그리스도와 함께'의 그리스도는 지상에 내려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4절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승천해 계셔서 하나님과 일체로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므로 그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얘기에요.
이 모든 얘기가 결론적으로 무얼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승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아쉬워하는, 아쉬워하는 게 우리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이고 추진력인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무얼 아쉬워합니까?
하나님을 아쉬워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등 돌리고.
그런데 그 아쉬워하는 현장이 어딥니까?
바로 사업 속에서, 직업 속에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 세상의 현안문제가 끊임없이 닥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꾸 잡동사니들이 귀중한 문제로 우리 앞에 등장할 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이 찾아야 되고 내 마음이 아쉬워해야 될 첫 번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입력을 시킨 다음에, 이 세상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다 잡동사니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식문제가 와도 잡동사니 취급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와도 잡동사니 취급하는 거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 같아도 잡동사니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말이 되는 거죠.

다~ 중요한 건데, 하나님 찾느라고 다 잡동사니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집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니까.
이렇게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지고 세상 것을 잡동사니 취급하고 하나님을 아쉬워하는 추진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워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느껴질 때, 잡동사니 취급했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당신의 문제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방향도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 놓고 믿는 마음으로, 망하면 망하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서 내 마음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잡동사니 취급을 해버리고, 내게 아쉬운 것은 돈, 자식의 성공, 다리가 길어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내게 아쉬운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아내면, 하늘과 땅이 다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나와 관련돼서.
내 위의 하늘과 내 마음 아래 있는 땅이 다 자리를 잡아가는 평강과 복지의 삶이 주어질 것이에요.
잡동사니 헤집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래야 될 당위성이, 믿음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세상을 아쉬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내가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돈이 없어 힘들지만 비록 건강 때문에 괴롭지만 우선은 이 건강도 돈도 잡동사니니 하나님을 먼저 찾자는 믿음을 발동할 때에 허락하시는 평강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지금 하늘에서 주님이 아버지를 대하시듯이 그렇게 아버지를 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잡동사니를 헤치고 찾음으로 하늘의 평강 안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